

조선 서당, '키즈 카페' 로 오픈

남원시, 남원예촌 관서당 활용
장원급제 이벤트까지 참여 가능

남원시는 남원예촌의 조선시대 서당인 관서당 남성재(官書堂 南星齋)를 가족과 함께 놀며 공부하고 장원급제 이벤트까지 참여할 수 있는 '키즈카페'로 새롭게 문을 연다고 밝혔다.

관서당 남성재는 조선 후기 주로 관원들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 세운 서당으로 광복 후까지 운영되었으며, 2000년에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156호로 지정된 서당이다.

이번 사업은 조선시대 관서당을 누볐던 아동들을 상상하며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문화자원의 현대적 해석과 재미요소를 가미해 관서당의 활용도를 보다 높이고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신개념 문화재 활용사업이다.

마당에는 조선시대 장원급제를 향한 과거시험 여정을 참나무 장작을 이용한 미로가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고, 닫혀있던 방에는 어려운 서책대신 누워서 역사 공부를 할 수 있는 책상과 딱지치기와 공기놀이 등 10여 가지의 전통 놀이가 있는 놀이방으로 개조해 4월부터 10월 까지 상시 운영된다.



남원시는 남원예촌의 조선시대 서당인 관서당 남성재(官書堂 南星齋)를 가족과 함께 놀며 공부하고 장원급제 이벤트까지 참여할 수 있는 '키즈카페'로 새롭게 문을 연다고 밝혔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곳의 운영에 대해 "현장 학습 사전 모임을 통해 흥미와 의미가 있는 교육형 체험프로그램 '남원예촌 과거시험장 이벤트'를 진행, 온가족이 함께하는 남원예촌 대표관광콘텐츠로 자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정보 접근성 · 검색방식 개선

문화재청은 문화유산 종합정보 시스템인 '국가문화유산포털'(www.heritage.go.kr)의 정보 접근성과 검색방식 등을 이달부터 개선해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국가문화유산포털은 국보, 보물 등 주요 지정 문화재와 전국 박물관 소장품의 유물정보 등 총 250만여건의 문화유산 디지털 콘텐츠 정보를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종합정보 시스템이다. 문화유산 검색, 궁궐 · 종묘, 조선왕릉, 기록유산, 유네스코 등재유산, 3차원(3D) 문화유산 메뉴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개선을 통해 가장 많이 활용되는 '문화재 검색' 서비스를 별도 메뉴를 거치지 않고도 국보, 보물, 사적, 명승 등 종목별 검색과 시도 · 시군구 등 지역별 검색, 문화재명, 지정종목, 지정번호, 지정연도, 지역 등 조건 검색을 통해 바로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문화재 조건 검색에서는 정식 문화재 명칭이 아닌 단어를 입력해도 검색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공감 콘텐츠를 다양화하는 한편, 고품질의 문화재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문화재 설명내용과 사진을 정비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전북가족영화제, 7월 16~18일 개최

5월 4일까지 참가 작품 공모

전북가족영화제 조직 · 집행위원회는 오는 7월 16~18일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 제3회 영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화콘텐츠연구소 시네숲이 주최하고 전북가족영화제 조직 · 집행위원회가 주관하는 이 영화제는 지역 청소년과 대학생, 일반인들이 만든 영화를 관람하면서 세대 간 소통과 이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관한 관심을 갖기 위해 기획됐다.

전주시,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전주시문화가정지원센터,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미, 완주공동체미디어센터, 사운드코리아가 후원하며, 전북교육청 · 전북대 · 전주대 · 우석대 · 원광대가 특별후원한다.

문화콘텐츠연구소 시네숲은 오는 5월 4일까지 참가 작품 공모를 진행하며, 공모 참여자는 홈페이지(www.jff.or.kr)에서 출품신청서를 내려받아 출품작품 링크 주소 또는 영상 파일을 이메일(dinesup@maver.com)로 제출하면 된다. 출품작은 지난해 1월 이후 제작된 작품이어야 하며, 장르와 상영 시간 제한 없이 전북 거주자로 청소년(중 · 고), 대학생, 일반인 모두 공모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063-253-4045)에게 문의하면 된다.

시상은 청소년(중 · 고) 부문의 경우 전북도 교육감상 1팀, 전북대 · 전주대 · 우석대 · 원광대 총장상 각 1팀, 남유 · 여우주연상 각 1명이다.

일반 부문은 전주시장상, 꿈꾸는 가족상, 가족 같은 친구상, 푸른희망상, 참사랑상 각 1팀과 남유 · 여우주연상 각 1명을 시상할 예정이다.

김영명 의심되면 '1339' 로

새롭게 쓴 '한국독립운동사'

우리 민족의 독립 운동사
발전적 · 주체적 시각서 정립



일제강점기 때 조국 독립과 자유, 평등을 위해 맞서 싸운 수많은 인물과 단체의 역사를 발전적이고 주체적인 시각에서 정립한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사를 다룬 신간도서 '새롭게 쓴 한국독립사 강의(한울아카데미)'가 출간됐다.

한국근현대사학회에서 집필하고, 신국판 422쪽에 달하는 두툼한 이 책은 대학 교양강좌에 적합하도록 총 16강과 보론(17강)으로 구성됐으며, 새 시대의 전망 속에서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망라함으로써 향후 독립운동사 강좌의 분수령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인물과 건물 사진, 지도, 도표, 자료 등 젊은 세대에 다가가기 위한 시각자료가 풍부해 대중 교양서로서도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먼저 1강부터 4강까지는 장석홍, 박병수, 김기승, 박결순 교수 등 학계 중진들이 나서 '총설', '자유와 독립 그리고 평화', '일제강점기 통치의 성격과 특징', '한국 독립운동의 이념과 방향, 한국 독립운동의 시기별 특징'을 다뤘으며, 5강부터 16강까지는 40~50대 신진학자가 참여한 가운데 5강부터 10강까지는 한말 국권회복운동, 1910년대 국내 비밀결사운동, 3.1운동, 1920년대 국내 독립운동, 1930~40년대의 사회주의 운동, 민족통일전선운동, 여성운동 등 시기별, 주제별 독립운동을 다뤘다.

이어 11강부터 16강까지는 민주, 연해주, 중국, 대한민국임시정부, 미주, 일본, 동남아 지역 등 해외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을 다루고, 마지막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식민지근대화론'에 대해 이는 민족차별과 불평등 구조였으며, 본격적인 경제성장은 1960년대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어 비판했다.

한편, 한국근현대사학회는 1993년 창립대

30여 년 동안 대한민국 근현대사학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제강점기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1998년 '한국독립운동사 강의'를 출간하고, 2007년에는 개정판을 냈으며, 2000년대에 '민(民)의 힘'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많은 신진학자가 좌우와 성별, 국경을 뛰어넘는 수많은 연구 성과를 산출했다.

특히 2016년 12월 제13대 회장으로 취임한 박병수 원광대 총장은 이듬해인 2017년 9월서울 북성각에서 한국근현대사학회 이사회를 긴급 소집해 전면 개편된 독립운동사 강의의 교재 출판을 결의하고, 이후 박결순 총장대 교수를 편찬위원장, 이계형 국민대 교수를 실무책임자로 선임해 3년에 걸친 집필 작업에 들어갔다.

13대 회장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학회를 이끌었던 박병수 원광대 총장은 "역사 인식이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전방위적인 논의에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는 편찬위원장 박결순 교수의 말을 인용하면서 지난날의 역사에 대해 분명하고 올바르게 알고 평가할 수 있어야 정의롭고 자유로우며 평등한 개혁 세상을 이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익산=장영환 기자

천주교 15개 교구, 미사 연기... 부활절 미사 생중계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함에 따라 제주교구를 제외한 모든 천주교 교구가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를 연기했다.

6일 기준 서울대교구를 비롯해 광주대교구, 대구대교구, 대전교구, 부산교구, 서울대교구, 수원교구, 안동교구, 의정부교구, 인천교구, 전주교구, 청주교구, 춘천교구 등은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미사 재개를 무기한 연기했다. 군중교구는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미사를 중단했으며, 마산교구는 초 · 중 · 고 개학 일정에 맞춰 미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부 교구는 성주간(부활절 전

주) 미사와 12일 여는 부활절 미사를 교구장 주례 하에 인터넷으로 생중계할 계획이다.

서울대교구는 미사 무기한 연기를 비롯해 ▲미사 재개 전제로 했던 주님 부활 대축일 전 '일괄 고백과 일괄 사회' 취소 ▲사제평의회 위원단 성유축성미사 참석 ▲성주간 전례 및 부활 대축일 미사 생중계 등을 결정했다.

대구대교구도 12일 부활절 행사를 신자들이 참석 없이 사제단 중심으로 진행한다. 성3일(성주간의 후반부 3일)과 부활절 당일 거행하는 5번의 미사는 대구대교구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뉴시스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